

나주시 '토마토빨나방' 초기 집중관리

3월 국내 발견 과채류 피해 해충 재배농가 예찰·방제 영농지도 이달부터 4개월간 정밀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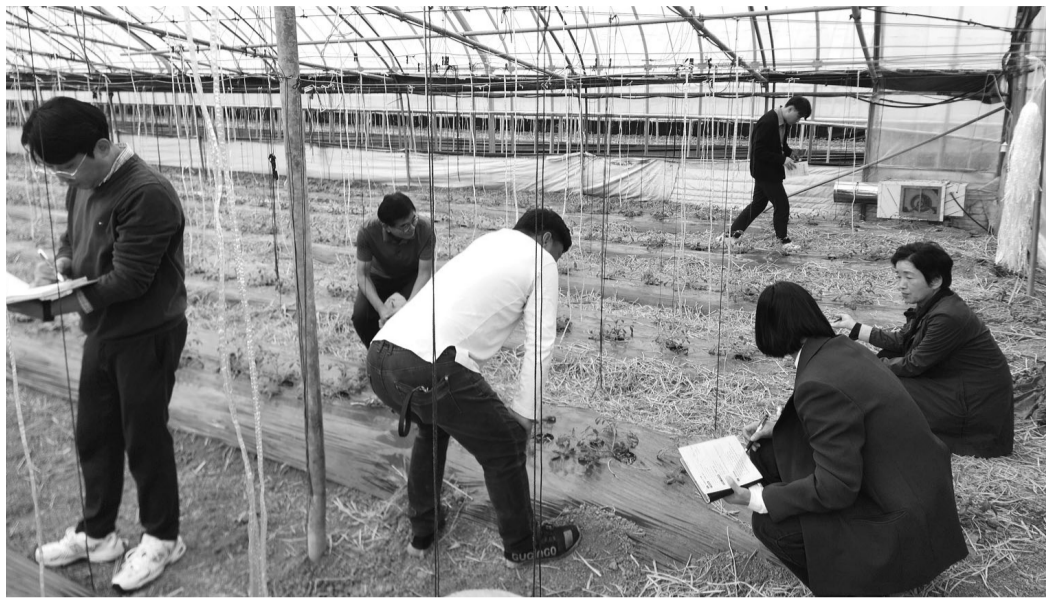
나주시가 토마토와 고추 등 과채류에 피해를 주는 '토마토빨나방' 집중관리를 농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시설토마토 작목반 및 친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빨나방' 예찰과 방제 현장 영농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토마토빨나방은 지난 3월 국내에서 발견되어 주로 토마토, 고추 등 과채류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빠른 번식력으로 인해 적시에 방제하지 않으면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작물에 피해를 주는 특징으로 제때 방제하지 못해 유충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매우 커지므로 작기 시작 전과 초기에 집중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시는 선제적 예방과 방제를 위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설토마토 재배포장 65ha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를 시행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영농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토마토 시설하우스를 찾아 영농지도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도할 계획이다. 예찰 트랩과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토마토빨나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발견 즉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 방제하고,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충망(1.6mm 미만)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와 유기농업 자재 등을 병행해 방제하여야 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를

통해 토마토 농가들이 방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준욱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마토빨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예찰과 방제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내년에도 각종 해충의 예찰 강화와 선제적 방제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축령산 '울울창창 초록숲' 책으로 만난다

군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 발간

장성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을 품은 축령산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첫 가이드북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 (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장성군과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기획하고 출판사 '상상창작소 봄'이 펴냈다.

울울창창 초록숲, 둘레둘레 축령산, 고상고살 마을들, 도란도란 사람들, 씨목씨목 장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전라도닷컴' 황봉년, 남인희, 남신희, 임정희 기자가 글을 썼다.

책을 펼치면 축령산의 나무와 숲에 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경과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

귀농인과 청년, 작가 등의 삶을 통해 본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성찰과 장성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도 소개한다.

가격은 권당 1만4000원이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주요 온라인서점과 지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 발



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에게 축령산의 매력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만연지구 관로정비·펌프장 설치

2026년부터 4년간 260억원 투입

화순군은 화순읍 만연리 지역이 환경부 지정 '20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이 부족해 폭우 시 범람이 발생하거나 인근 하천 수위 상승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 지역으로 화순읍 만연지구 등 전국 13개 지자체 16곳(환경부 예산안 3138억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발표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우수관로 개량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읍 만연지구에 국비 156억 원 등

총사업비 약 260억원을 투입해 관경 확대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우수관로 2.1km를 개량해 통수 능력을 강화하고, 시설용량 150t/분의 빗물펌프장 1개소를 신설해 집중호우 시 사전에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부터 4년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 2020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만연천 인근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침수 피해에 대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이벤트

4000원 할인 쿠폰 300매 제공

함평군이 연말을 맞아 공공배달앱 '떡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연말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민간 배달앱 대비 중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이용해 지역 음식점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함평군은 떡깨비 앱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 쿠폰을 300매가량 제공한다.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1회 한정으로 배달 및 포장 주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떡깨비'를 검색해 다운로드하고, 함평군 배달 지역으로 설정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지역 내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떡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간편하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불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떡깨비 이벤트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참다래 수확시기 '곰팡이병' 확산...40% 낙과 피해

9월 고온·폭우에 곰팡이 번져

기후변화 피해 정부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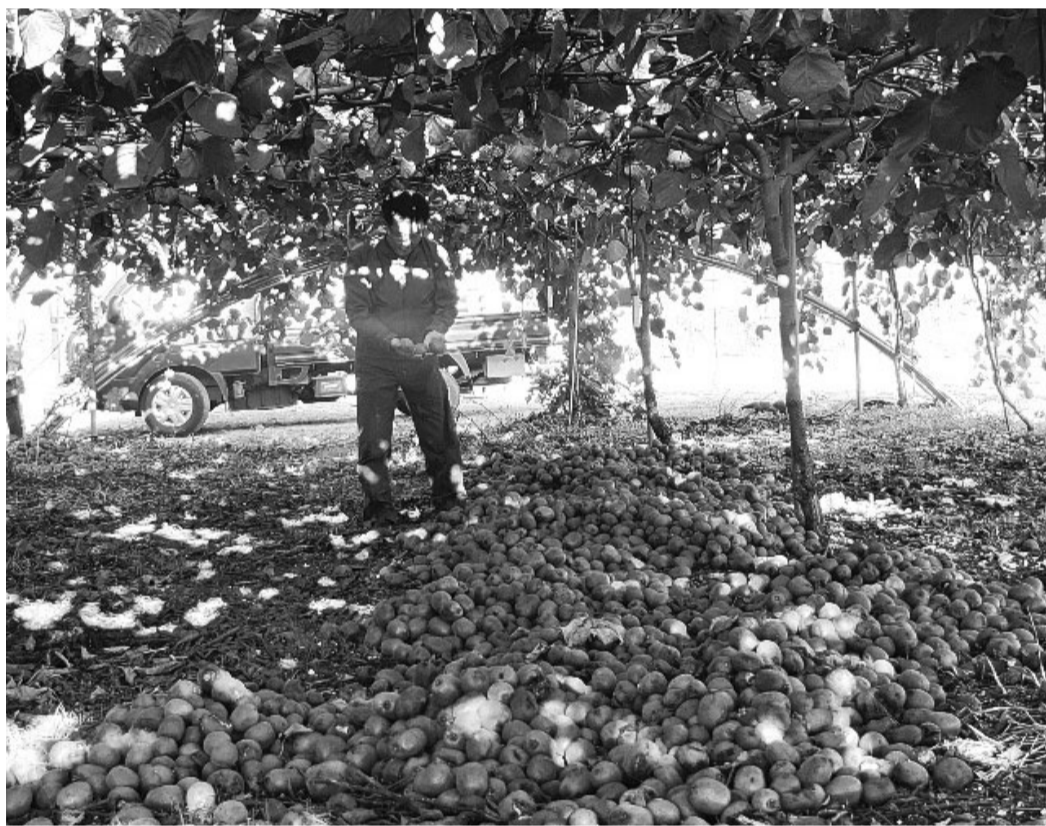
참다래(그린키위) 재배 농가들이 수확시기를 맞아 곰팡이병(일명 잿빛곰팡이병)이 번져 생산량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장흥지역 참다래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익어서 수확을 해야 할 시기에 곰팡이병이 발생해 수확도 하기 전에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후속과일과에 속한 참다래는 뿌리가 약한 친근성 습성으로 지난 9월 한 달 평균기온이 30도 이상의 고온에 폭우로 인한 습도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 참다래 열매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참다래 농사를 7년째 짓고 있는 대덕읍 신월리 김은수(70·참다래작목반 회장)씨는 재배농가가 소수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해보상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기후변화 적응에 약하고 예민한 과수는 정부차원에서 '비가림설치(비닐)'이나 '무인방지기시스템' 지원이라도 해주면 곰팡이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참다래 재배는 1990년대 정부의 권장품목으로 전남지역 남해안지역에 보급이 확대되다가 과잉생산으로 주춤하다 참다래가 당노예방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덕읍 신월리에서 참다래 농사를 짓는 김은수씨가 곰팡이병으로 떨어진 참다래를 보며 낙담하고 있다.

한편, 장흥지역 참다래 재배면적은 총 65농가에

72ha에 600t에 달해, 전남 지역에서 보성군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곳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